

1885년 우리나라 최초 農學書 「農政新編」펴낸

安宗洙

朴星來(한국외대 인문대학장 / 파학사)

〈우루과이라운드〉 바람이 세차게 몰려오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지금으로서는 「신토불이(身土不二)」란 구호밖에 없는 모양이다. 농업을 포함한 산업 등 그밖의 모든 분야가 국제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나라의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우리 선조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던 서양 과학기술분야는 농학(農學)이었다. 새로운 무기나 기계, 기선 등에 대해 빨리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아주 컸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새로운 과학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농학이야 예로부터 선비들도 대강은 알고 있어 누구라도 가까이하기 쉬워보였던 까닭이었다. 우리나라는 본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나라가 아니었던가!

36세로 짧은 생애 마쳐

1885년에 처음 출판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농학서 「농정신편(農政新編)」은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책이다. 이 책을 지어 우리 근대농학사의 개척자로 꼽히게 된 사람이 안종수(安宗

洙, 1859~1895)이다. 「농정신편」이라는 단 한권의 책만 남기고 36년의 짧은 생애를 산 그의 죽음은 개화기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 왕비 민씨가 왜군에 의해 죽음을 당하자 전국에서 의병이 켜기, 점점 심해지는 외세의 침략에 항거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당시 나주(羅州)의 참서(參書)로 있었던 안종수는 이 어려운 시대에 개화파 내지는 친일파로 지목되어 의병측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농정신편」은 출판되기 훨씬 전부터 개화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1880년 일본에 다녀와 크게 감명 받은 지식영(池錫永, 1855~1935)은 1882년 개화를 위한 유명한 상소문을 임금에게 올렸는데 그때 널리 보급하자고 주장한 책 10권 가운데 바로 안종수의 「농정신편」이 들어 있었다. 이 10가지 책중에 중국에서 나온 책이 6권이었는데, 그중 셋은 과학책이었다. 나머지 4권이 국내인사가 쓴 책인데, 그중에 과학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 책뿐이었다.

池錫永이 전국보급 상소

그런데 어떻게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출판사 광인사(廣印社)가 처음 출판한 이 책이 출판되기 3년 전에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물론 이 책은 아직 출판된 것이 아니었고, 지식영은 원고상태로 이 책을 읽고 그것을 널리 보급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근대식 우두법을 도입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지식영은 자기보다 1년 뒤에 일본을 다녀온 안종수와 잘 알고 있던 사이였을 것이 분명하다. 안종수는 1881년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한 사람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1876년 나라의 문을 열게 된 조선 왕조에서는 이미 근대화과정에 돌입해 발전하고 있던 일본과 중국에 사람들을 보내 무엇이건 배워오기를 희망했다. 그 희망에 따라 1881년 중국 천진(天津)에는 기술유학생 38명을, 일본에는 62명의 고위급 시찰단을 파견했다. 신사유람단은 일본국정시찰단이라고도 하는데 12명의 간부가 각 분야를 맡아서 시찰하도록 구성되었고, 안종수는 승지 조병직(趙秉稷)의 수행원으로 일본 시찰에 나섰던 것이었다.

그를 데리고 간 승지 조병직은 일본의 세관(稅關)을 조사하도록 배치되었다. 당시 무역이란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국제 관행이어서 개국 직후의 조선에는 세관에 대한 지식이 아주 중요했다. 그러나 안종수는 세관보다는 엉뚱하게 농학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연고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는 당시 일본의

대표적 농학자였던 진전선(津田仙, 1837~1908)을 만나 그로부터 새로운 농업기술을 배우게 된 것이다. 젊을 때 난학자(蘭學者)였던 그는 1858년 영어가 화란어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영어공부로 그의 진로를 바꿨다. 그리고 명치유신(明治維新, 1868) 직전에는 미국에 군함을 사러 가는 정부 사절단을 따라가 통역연습을 하고 돌아왔다.

그는 특히 1874년 이미 「농업삼사(農業三事)」라는 농학서를 발행한 일이 있는데, 1873년 비엔나에서 열렸던

데, 4권으로 구성되었다. 20장 이상의 삽화까지 들어있는 책이었는데, 이 책은 1905년 박문사에서 다시 인쇄되었을 때 그림은 모두 사라졌다. 한문으로 썼던 책인데, 1931년에는 한글로 번역되기도 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차례 책이 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책이 당시로서는 시대를 상당히 앞선 훌륭한 책이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제1권은 토지의 여러 가지 종류와 서로 다른 성질 등을 소개한 부분이다. 그리고 각각 다른 땅을 효과적으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당시 조선의 농업기술을 개량하는데 직접 도움을 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우리나라의 근대과학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서양식 과학기술용어가 등장한다. 소다, 석회, 마그네시아, 산화철, 유산, 인산, 클로드, 규산 등의 용어가 우리 역사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과학의 내용은 1880년대를 통해 천천히 이 땅에 스며들고 있었다. 예를 들면 1883년에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 「한성순보(漢城旬報)」에는 거의 날마다 서양 근대과학을 소개하는 기사가 가득했다. 당시 조선의 지식층에게는 서양의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란 그대로 모두 누스꺼리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 신문에 여러 가지 근대 과학기술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한성순보」가 사용한 과학기술용어들이란 거의 전부 중국에서 만든 말들이었다. 그러나 안중수의 과학용어는 중국의 것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었다. 이 시기에 조선의 지식층에게는 중국식 용어가 익어가고 있었지만, 안중수는 일본식 용어를 들여오기 시작했던 셈이다.

안중수는 겨우 36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농학자였다. 그가 남긴 「농정신편」은 근대농업기술을 처음 국내에 소개했던 중요한 책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 확실하다. **57**

1881년 조선조말 22세때 신사유람단의 한사람으로 일본에 다녀온 安宗洙는 당시 일본의 대표적 농학자 津田仙으로부터 새로운 농업기술을 배워 1885년 우리나라 첫 농학서 「農政新編」을 펴낸 근대농학자이다.

민국박람회 에 일본 심사관으로 파견되었을 때 거기서 화란농학자 호이브렌크(荷衣白蓮)로부터 배워온 방법을 책으로 지은 것이었다. 안중수를 만난 진전선은 바로 이 책을 주어 서양 농업기술을 조선에 전해주었던 셈이다. 그는 「농업삼사」 등 일본에서 나온 근대 서양식 농사기술을 조사하여 그의 책을 쓴 것이다. 진전선은 1883년 6월 미국인 한사람과 함께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조선을 방문했는데 그가 조선에 머문 한달 동안 안중수와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

삽화 곁들여 4권으로

안중수의 「농정신편」은 원래 1885년 광인사에서 납활자로 처음 인쇄되었는

로 이용하기 위해 농토를 늘리기도 해야하고, 또 경작물을 번갈아 바뀌주기도 하는 등의 기술이 필요한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제2권에는 여러 가지 비료들이 소개되었는데, 인분과 퇴비를 비롯 가축의 분비물과 그밖의 비료에 이르기까지 설명되어 있다. 제3권과 제4권은 실제 각종 농작물의 생애와 그 재배방법을 설명한 부분이다.

서양 과학용어 처음 소개

안중수가 일본에서 귀국한 것은 1881년 7월말이었고 그가 이 책을 완성한 것은 같은 해 12월 하순이었음이 책머리에 밝혀져 있다. 꼭 5개월만에 이 책을 완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기간에 무슨 시험을 해볼 수는